

성 클레멘테 성당 한인공동체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San Clemente Mission Parish

주임신부 전흥식 요아킴 | Tel (661) 871-9190 | 1305 Water St., Bakersfield, CA 93305
Fax (661) 873-7286 | 홈페이지 www.sanclementemission.org | 통권 제 28 권 42 호



주일 미사: 오전 8 시 (한국어, 영어), 오전 9 시 30 분(영어), 오전 11 시(스페인어)
토요일 미사: 오후 6 시(스페인어)
평일미사: 월, 화, 목요일에는 오후 6 시. 금요일에는 오전 9 시 30 분
고백성사: 월, 화, 목요일 평일미사 전 (오후 5:30 ~ 5:50) 또는 시간약속을 요함.
성체조배: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
평신도 협의회 임원회의: 매월 둘째 일요일 오후 7 시
성당사무실 시간: 화요일 ~ 금요일(9:30AM ~ 6:00PM)
한인 공동체 이메일: sanclemente.kc@gmail.com

미 사 성 가	입 당 ()	봉 헌 ()	성 체 ()	파 견 ()
---------	--------	--------	--------	--------

미사 전례 예절

- 흔히 미사를 “보러간다”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심하고 감사하는 마음과 눈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귀와 혀와 입과 감정과 마음을 합하여 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미사참례”라고 해야 합니다.
- 성당에 항상 늦게 와서 뒤에 앉아 있다가 미사가 끝나기가 무섭게 일어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인이 아니고 손님 같은 신자입니다. 매일은 못하더라도 주일만은 온전히 주님만을 위해 여유를 가집시다.
- 미사참례 복장은 단정한 옷차림, 되도록 정장을 하도록 합시다. 소매 없는 옷이나 지나치게 짧은 미니스커트, 속이 많이 드러나는 옷, 츄리닝, 기타 운동복, 슬리퍼 착용은 합당한 전례 복장이 아닙니다.
- 성당마당에 들어서 성모님께 인사를 합니다. 이때 성모님께 성호를 그어 인사함은 바람직한 행동이나 굽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참고: 새 미사예절 지침서 등에서-

성소를 위한 기도

- 좋으신 목자 예수님,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부르시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 비오니, 오늘도
믿음직한 젊은이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소서.
- 온 인류의 구원을 바라시는 주님,
온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빛과 사랑의 불을 갈망하고 있사오니
- 많은 젊은이들이 그 갈망에 응답하여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 주님, 슬기로운 여성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께 자신을 봉헌하여 복음의 완력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 또한 주님의 몸인 교회에 봉사하며
도움과 사랑을 애타게 바라는 이웃들에게 헌신하게 하소서.
- ◎ 아멘.

◆ 주일 미사 전례 봉사자 ◆

날짜	미사해설	독서	복사
10/14	이 마틸다	이 요한/황 스텔라	황 스테파노
10/21	이 그레이스	이바오로/손 데레사	황 스테파노
10/28	이 마틸다	이 요한/황 스텔라	황 스테파노
11/4	유 요한	이 바오로/손 데레사	황 스테파노

영어독서:

우리의 정성

지난 주일	봉헌금	2 차 봉헌	교무금
	\$181	\$	\$350

성당 청소 봉사자 일정

청소시간은 매주 토요일, 오후: 3 시 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이 요한 총무님께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9/22	이 요한/ 이 마틸다	10/27	김유스티노/ 김유스티나
9/29	유 요한/ 유 마리아	11/3	이 바오로/ 이 빅토리아
10/6	이 그레이스/ 김 마르타	11/10	김 마론/ 김 헬레나
10/13	홍 마르코/ 홍 아녜스	11/17	박 바오로/ 박 세라피나
10/20	김 요아킴/ 고 안나	11/24	황 가롤로/

질병으로 고통 받는 분들을 위한 기도

공동체나 이웃에서 병환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조속히 병환과 어려움을 이겨내시길 바라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공동체 소식

성체조배: 매달 첫째 목요일 오후 6시 30분

성체조배를 통하여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인공동체 임원회의: 매달 두번째 월요일 오후 7시

임원 분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 기도성가 모임: 매주 목요일 오후 7:30

성가와 말씀 나눔, 기도로 이루어지는 은혜로운 시간을 많은 형제, 자매님과 함께 하기를 희망 합니다.

장소: 10907 Prairie Stone Pl, Bakersfield, CA 93311

****시간 변경 안내: 7:30pm 으로 30 분 앞당겨집니다.****

성경공부: 주일미사 후 친교실에서 (셋째 주 제외)

매주 미사 후 코린토서로 성경 공부를 합니다.

형제 자매님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Homeless Feeding (11/3 , 7:00am-12:00pm)

홈리스를 위한 조식 봉사가 St. Vincent de Paul 에서 있습니다.

형제 자매님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립니다.

주소: 300 Baker St, Bakersfield, CA 93305

가을 축제 Nov 4th 2018

11 월 4 일 가을 축제가 있을 예정입니다.

많은 분의 참여와 봉사를 기다립니다.

결혼을 축하합니다 Nov 11th 2018 (12:00 Noon)

이 그레이스 자매님의 아들 Anthony Suh 군과 Jessica Chen 양의 결혼식이 오는 11 월 11 일 오후 12 시 아래 장소에서 있겠습니다.

결혼식: Kyoto Garden - Doubletree by Hilton at 12:00pm

120 S. Los Angeles St, Los Angeles. CA 90012

피로연: Five Star Seafood Restaurant at 5:00pm

140 W. Valley Blvd, (D-4th Fl). San Gabriel. CA 91776

많은 분이 참석 하시어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해주시기 바랍니다.

Sorry: 사정으로 인하여 개별 청첩장 발송을 생략하오니 깊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말씀의 이삭

천장 벽화

-김호정 엘리사벳 | 영화배우-

파리 북쪽 몽마르트르 언덕 꼭대기에 꽤 유명한 성당이 있습니다. 전망이 좋아 관광객들에게는 필수 코스인 곳인데 돔으로 이루어진 성당에 들어가 보면 천장에 그려진 예수님의 벽화가 꽤 인상적입니다. 두 팔을 벌리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인데, 움푹 파인 돔 안쪽에 그려져서 그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마치 예수님이 앉아 있는 나를 안으려고 팔을 벌리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옛 그제 같은 몇 해 전, 느닷없이 쓰러져 한동안 침대에 누워서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제게 더 이상의 미래는 없었으며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뭐가 잘못돼서 이 지경이 되었을까' 하는 생각만 온종일 떠올렸고, 가족들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두려움으로 가득 찬 무기력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인간은 늘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무기력하고 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삶이 제게 얼마 남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몸 상태가 조금 나아지자 저는 더 나빠지기 전에 제 주변 가까운 친구들을 만나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꽤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친구를 만나기 위해 약봉지에 진통제를 가득 넣고 유럽까지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친구를 만나서 함께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친구의 도움을 받으며 파리의 전경을 보기 위해 몽마르트르 언덕에 올라갔다가 성당이 눈에 들어왔고 내부도 둘러볼 겸 들어가서 잠시 쉬려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문득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보니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진 벽화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저를 감싸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음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혹시 눈물이 나올까 봐 눈을 질끈 감아버렸지만 이미 제 마음은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이 아픔의 고통은 저와 항상 같이해도 괜찮습니다. 그럼 차처럼 같이 부여안고 살겠습니다. 다만 제 가족과 주변 친구들에

게 저로 인한 걱정과 슬픔이 크지 않을 정도로만 제가 저의 몸을 지탱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여행을 마치고 한동안 후유증으로 더 아프기도 했지만 그래도 마음은 왜인지 훨씬 가벼워지고 저의 실체를 제대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서서히 나아져서 기적처럼 다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일 때문에 파리에 오게 되었고, 다시 그 성당에 앉아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보니 참 감개무량합니다. 느닷없이 어느 날 아프게 된 것도 믿을 수 없고 약을 끊고 이렇게 다시 멀쩡하게 살아있다는 것도 믿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이제 남은 생을 감사하며, 자그마한 빛을 비추며 의미 있게 살기를 기도합니다.

-서울주보에서-

교리상식 부제는 무슨 일을 하나요?

부제는 부제품을 받은 사람을 가리키며 사제품을 받기 위한 준비단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초기 교회에서 부제는 교회 공동체에서 다양한 일을 담당하는 중요한 보조자였습니다.

부제는 사도들(오늘날의 주교들)이 기도와 말씀의 봉사에 충실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죠. 부제를 뽑게 된 것도 공동체의 식탁 봉사를 위해서였으니까요.(사도 6,1-7 참조) 중세를 지나면서, 초기 교회에 비해 부제의 역할이 미미해졌고, 제2차 바티칸공의회 이후에는 사제직을 준비하는 일시적 부제뿐 아니라 초대교회의 임무를 염두에 둔 종신부제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글: 「교회상식 속풀이」 | 바오로딸 발행